

국민학교 때 사춘기 맞는 아이들

외양에 치우친 세대, 동일한 눈높이에서 선도해야

‘이춘기·삼춘기를 사는 아이들’ 외모 가꾸기는 불안전의 표현

요즘 아이들은 성에 빨리 눈뜨다. 초경도 국민학교 5, 6학년이면 거의 다 경험한다. 중학교 3학년 때나 고등학교생 일 때 경험하는 남학생의 몽정도 대부분 국민학교 때 치른다. 요즘 유치원에서 아이들 사이에 제일 빈번히 오르내리는 화제도 “누구랑 결혼할꺼니?”라는 물음이라고 한다. 여자 아이들은 맘에 드는 남자 아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도 불사한다. “결혼이 뭐니?”라고 물으면 유치원생인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망설이지 않고 대답한다. 한 아동학자는 요즘 아이들의 조숙한 성숙에 대해 ‘이춘기 삼춘기를 사는 세대’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조숙한 것은 불안전을 동반한다. 요즘 아이들이 빨리 성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만큼 그에 대한 불안전함도 함께 한다. 그 대표적인 불안전함이 ‘외모 가꾸기’로 나타난다.

내가 남학생들에게 인기 없어도 엄마 괜찮아?

서초구에 사는 김해수 양(국교 6학년)은 요즘 엄마와 함께 에어로빅 학원에 다니자고 설득중이다. 엄마가 싫으면 ‘나 혼자’라도 다니겠다고 고집이다. 보기에 그다지 뚱뚱하지도 않은데 같은 반 남학생에게 돼지라고 놀림 받은 이후에 ‘충격을 먹고’ 살을 빼야 되겠다고 성화인 것이다. 해수 양은 그 놀림 이후에 다리에 랩을 감고 잔다. 자기가 뚱뚱하다고 놀림받은 이유가 순진히 다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엄마는 내가 뚱뚱보에다 추녀라고 놀림받아도 상관없단 말이지? 내 친구 엄마는 매일 아침 색깔을 맞춰 옷을 챙겨주고 옷에 따라서 헤어스타일도 정해주고 손질해 준다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무심해? 내가 남학생들에게 인기 없어도 상관없잖아. 난 주워 온 자식인가봐.”

에어로빅 학원에 보내주지 않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사랑마저도 의심케 하는 결과를 불러오자 해수 양의 엄마는 저러다가 지치겠지 싶어서 딸에 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에어로빅복을 사러 다니는 것도 중요 과정중의 하나였다. 대부분 형광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타이즈는 ‘누구나 입는 옷’이기 때문에 입을 수 없다고 우기는 바람에 서문 시내 백화점을

모조리 순례하다시피 해서 검정색에 꽃무늬가 놓여있는 타이즈를 겨우 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고난 해수 양의 엄마는 “엄마 노릇 하기가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다”고 탄탄했지 만 해수 양은 신나기만 했다. 나도 이제는 매력적인 몸매를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흥분 상태가 지속되었다.

아빠가 바람 난다면 이쁘지 않은 엄마 탓

이 과정은 해수 양에게 또다른 미용 지식을 알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매일 학교에서 먹는 우유를 마시지 않고 가져와서 세수하고 샤워할 때 사용했다. 먹는 것이 미용 효과에 제일 좋다고 말해주고 “콜레오 콧트라가 매일 우유로 북북해서 이쁘겠다더라”며 우유 마시지

를 걸르지 않았다. 다리를 높게 하고 자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매일 아침 배고픔을 참아가며 아침식사를 야채즙으로 때우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해수 양의 지론은 “부지런한 사람만이 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런 미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에게까지 요구하게 된다.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강정아(국교 6년) 양은 “멋부리지 않는 엄마가 칭피하다”고 말한다. 특히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 엄마 옆에 붙어앉아 “눈화장 색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 유행하는 갈색톤으로 해봐” 또는 “구두도 그런 것 말고 앞이 뚱뚱한 것을 신는 것이 훨씬 세련돼 보인다”는 식의 다양한 주문을 한다. 과마미리에 부끄러움을 모르지 않은 채 나가

는 것도 이해할 수 없어 한다. “엄마는 남들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그렇게 좋아?”라고 물으며 옷집을 지나칠 때도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색조를 유심히 들여다보기 일쑤다. 너무 외모에 집착하는 정아에게 엄마가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다”고 말해주었지만 “외모가 형편없는데 누가 그 사람 마음을 알려고 하겠나?”고 나름대로의 식견을 펼치며 일단 남의 눈에 ‘하체’로 취급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날고 기어도 소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쁘지 않으면 아무쪼록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정아는 “아빠가 바람나도 그것은 순전히 엄마가 이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외모가 형편없는데 누가 마음을 알려고 하겠어?

또래들끼리도 옷 잘 입는 그룹과 대충 입는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이쁘지 않은 아이와 친구가 되는 것도 모욕이다. “글쎄 날 어떻게 보고 그런 얼굴로 나하고 친구하잖고 하난 말이야. 그런 애들과 어울리다가는 남자 애들이 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을 꺼야.”

잘 생기지 않는 남학생이 프로프즈(?)를 해와도 이 모욕

감은 마찬가지다. “옷이나 세련되게 입고 다니면 말도 안해, 평소엔 옷 입고 다니는 꼴이 생전 텔레비전이라고는 보지도 못한 애 같다니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미에 대한 기준은 전적으로 TV에 의존한다. 요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잼의 여가수가 멋있긴 하지만 남자와 똑같이 거칠게 춤추고 행동하는 것이 멋진 것이 아니라 그가 입고 나오는 옷이 멋있을 뿐이다. 각종 하이틴 잡지들에서 예쁜 여학생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익힌 이들은 여성다운 것과 여성답지 않은 것을 확연히 구분하고 있다.

이렇듯 철저히 외모에 치중하지만 정작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노동의 몫에 대해서는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몸만 아가씨 같으면 뭐하니? 아직 네 속옷 하나 제대로 빨아입지도 않으면서”라고 핀잔이라도 줄라치면 “내가 가정부냐”고 따진다.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남의 눈에 ‘멋진 여자’로 보이는 것에 있다. 이 매력의 자신이 상품화 되고 있기 때문에 나온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왕 상품이라면 ‘일등품’이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춘기의 여학생들에게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나쁘다는 식의 단편적인 교훈은 이제 ‘씨가 먹히지’ 않는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함께 못 생긴 것을 고민해주며 주체적인 미의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김명순 기자〉

